

#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10화		
<p>10. 동학은 가슴에 남아</p> <p>“업동아. 고맙다. 서방님 마지막에 니가 옆에 있어줘서.”</p> <p>“흑흑 아씨...”</p> <p>“아씨라고 하지 말래두. 언니라고 해봐. 어서.”</p> <p>“언니. 흑흑흑.”</p> <p>“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그래도 울지 말자 우리. 응?”</p> <p>대둔산 정상의 동학군 기지 움막 안에서 주명과 업동은 부르트고 갈라진 손을 마주 잡고 있었다. 업동은 다리를 다친 채 어제 밤늦게 기지 앞에 쓰러져 있었다. 죽천에서 관군과 싸우다가 부상당한 몸으로 산을 오르느라 지쳐 실신했다가 정신을 차린 업동의 눈앞에 주명이 있었다. 두 여인은 몇 달 만에 만난 기쁨 보다 슬픔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p> <p>동학군은 우금치와 태인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한 뒤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등 주요 지도부가 체포되었다. 그래도 끝까지 항전하던 동학군은 그러나 석대들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는 전의를 상실한 채 흩어지고 말았다.</p> <p>진산 접주 최공우를 비롯한 간부들이 가족들과 함께 대둔산에 집을 짓고 산다는 소식에 여러 동학도 들이 찾아왔고 주명도 그 중의 하나였다. 그녀는 인혁의 행방을 찾아 해매다가 동학군들이 모여 산다는 얘기에 찾아들었고, 업동 역시 김석순 접주가 대둔산으로 갔다는 걸 알고는 피신하러 왔다가 주명과 재회하게 된 것이다. 대둔산에는 어느 새 50여 명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다. 관군과 민보군 이 연합해 수차례 공격해 왔지만 실패하고 퇴각했다. 동학군들이 대둔산 정상에서 한파를 견뎌가며 부족한 양식에도 항쟁을 멈추지 않은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업 동은 주명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에게서 인혁의 죽음을 들은 주명은 희망을 잃었다. 그래 도 주명은 업동을 달래며 위로했다. 울지 말자는 건 어쩌면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으리라.</p> <p>***</p> <p>주학이 대둔산 및 터굴에 도착했을 때는 순무영 병사들과 일본군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 다.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희희낙락한 그들의 얼굴에서 주학은 상황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했다.</p> <p>“아우, 지독한 놈들. 끝까지 항복을 안 하네. 결국 한 놈 빼고 다 죽었으니.”</p> <p>“죽으려고 맘 먹은 것들이니 그렇지.”</p> <p>“아무리 그렇다고 지 새끼를 끌어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려?”</p> <p>“일본 놈들은 어떻고. 움막에 불 지르고 그 앞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는 꼴이라니.”</p> <p>“애 뻔 여자도 있었다던데 나는 그게 좀...”</p> <p>임신한 여자가 사살되었다는 얘기에 주학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혹시? 주명을 못 본지 두 달도 넘었 다. 주명이 사라진 숙소 근방을 살살이 뒤졌으나 흔적을 찾지 못한 주학은 동생이 아이를 위해 마음 을 바꾼 것이기를 바라며 출발했다. 인혁과 업동을 찾으면 동생과 못다 한 회포를 풀리라. 하지만 주 학은 그 이후로 다시는 동생 주명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남편을 찾아 어디를 헤매고 다 니는 걸까. 부디 주명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주학은 대둔산 동학군에 대해 더 물어 보려고 막사로 향했다. 그런데 병사 두 명이 한 소년을 포승에 묶어 끌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 생존자를 지켜보던 주학의 눈이 커다랗게 변해갔다. 남장을 했지만 분명 업동이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당당하게 끌 려오던 업동과 주학의 눈이 마주쳤다.</p>			

\*\*\*

깊은 밤. 주학은 조용히 감옥으로 향했다. 옥 안에는 죄수가 얼마 없었다. 옥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주학은 마침내 구석에 처박혀 웅크리고 있는 죄수의 모습이 업동이임을 알아차렸다. 내일이면 고문이 시작될 것이다. 전멸한 동학군의 신원과약과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업동을 살려둔 것을 알게 된 주학은 마음이 급했다.

“업동아.”

조용한 속삭임에 움직임이 없자 주학은 초조함에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다.

“업동아.”

움짚거리던 죄수의 몸이 천천히 일어나 돌아앉았다 업동이 맞았다. 주학은 바로 옥문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조금 전 문 앞에서 막아서는 군졸에게 그는 엽전 꾸러미를 건넸다. 돈을 보고 군침을 삼키며 군졸은 문을 열어주었다. 주학은 꾸러미 하나를 더 보여주었다. 의아해 하는 군졸에게 주학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 쥐어졌던 열쇠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 업동을 일으켰다.

“왜 이러십니까?”

“아무 말 말거라.”

업동은 자신을 부축해 나가려는 주학의 옷깃을 부여잡았다.

“저 혼자 갈 순 없습니다.”

“뭐라고?”

업동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사람들이 둘을 쳐다보고 있었다.

“안된다. 일이 커지면.”

“그럼 저도 안 갑니다.”

강경한 업동의 태도에 주학은 할 수없이 사람들이 있는 옥문을 모두 따주었다. 그들은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주학이 사람들에게 뭔가 속삭인 후 문을 열고 나갔다. 군졸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팔짱을 끼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때 주학이 옆에 놓인 군졸의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가 쓰러지자 주학은 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나와 흩어졌다. 주학은 횃불을 감옥 안으로 던져 넣었다. 불길기 치솟았다. 주학은 업동의 손을 잡고 뛰었다. 절뚝거리는 업동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주학은 그녀의 앞에 등을 돌리며 앉았다.

“업히거라.”

“네?”

“시간이 없다. 어서.”

업동의 손을 잡아끌어 등에 태운 주학은 달렸다. 그녀의 몸은 너무도 가벼웠다. 감을 따기 위해 그의 등을 탔던 열네 살 때보다도 가벼운 것 같았다.

“불이야!”

관사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두 사람은 관아를 빠져나왔다.

\*\*\*

불이 꺼진 산 아래 주막 앞에 말이 한 필 서있었다. 주학이 준비해 둔 것이었다.

“타거라”

“도련님.”

“내 걱정은 말고 멀리 가서 숨어 있거라. 시국이 안정되면 그 때 다시 만나자꾸나. 내가 방법을 마련하겠다. 우리가 함께 할 방법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뭐라고?”

“도련님이 찾는 방법은 지금 세상엔 없어요.”

주학은 말문이 막혔다. 업동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그녀는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주학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허나 저는 세상이 바뀌어도 이런 도련님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상과 도련님, 아니 당신이 원하는 세상은 다른 거 같아요.”

업동은 몸을 돌려 가려 했다.

“변할 것이다. 너에게 당당하도록 변하면 되지 않겠느냐.”

주학의 눈빛은 간절했다.

“뭐라도 할 것이다. 나는... 너는 그리도 모르겠느냐?”

업동은 그의 눈빛에 마음이 무너짐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와 함께 하고 싶었다. 사랑하고 있다. 차가운 출세주의자에 이기적인데다 동학군 동지를 죽인 민보군인 그를.

“타고 가거라. 부탁이다.”

업동의 침묵에 절망한 주학은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업동은 잠시 고민하다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고개 숙인 주학에게 담담히, 그러나 진심을 다해 말했다.

“새 세상이 오면 당신을 만나러 오겠어요, 양반도 노비도 없고 당신과 내가 온전히 남자와 여자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놀라 고개를 든 주학의 얼굴에 몸을 숙인 업동의 입술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재촉해 바람처럼 달려 나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

20년의 기억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치 어제 일이었던 듯 생생한 슬픔이 두 사람의 마음을 후비고 지나갔다. 전투에서 패한 후 체포된 동학군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신분을 숨기고 성을 바꾸거나, 깊은 산속으로 피신하여 살아남아야 했다. 동학군 참여자를 색출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려는 관군과 민보군, 일본의 집요한 노력은 갑오년 이후로도 10여년 이상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 동의 눈에서 금금증을 알아 챈 주학이 씩씩하게 웃었다.

“내가 변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잊은 거니?”

“아니오.”

“네가 없으니 내 세상도 없었다. 내가 뭘 원했던 건지 그 때까지도 몰랐는데 너를 잃고 나서 알았다. 너의 마지막 말. 네가 꿈꾸던 세상을 실은 나도 꿈꾸었는데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맸던 거지.”

“그럼 지금은 길을 제대로 찾으신 겁니까?”

“그래.”

“어떤 길인가요?”

최 동은 확인하고 싶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길. 예전에 동학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 민중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지금 보니 네가 이미 가고 있는 길이었구나. 너는 여전히 동학군이야.”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나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일본 놈들에게 조아리며 출세에 연연하고 있었을 거야.”

두 사람의 애뜻한 눈길은 그러나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끊어졌다. 주학과 최 동은 반사적으로 문 옆에 몸을 숨긴 채 물었다.

“누구냐?”

밖에서 바텐더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밖에서 순사들이 술집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얼른 피하셔야겠어요.”

문을 열자 바텐더가 두 사람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복도 끝 비상구로 나가자 좁은 골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상하이 지리를 아는 최 동이 주학의 손을 잡고 골목을 뛰었다. 도로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20년 전 그날 주학이 그랬듯이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앞만 보고 달렸다. 그의 목숨을 구해야 하기에.

항구 가장 끝 작은 선착장에 작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주학은 그 배를 타고 청도로 가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타야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선 두 사람에게 선장이 다가왔다.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주학은 술집에서의 일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는 품 안에서 봉투를 꺼내 최 동에게 건넸다. 독립군을 양성할 학교를 세울 자금이었다.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살아있어 줘서. 계속 싸워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또 볼 수 있겠지?”

“아마도.”

그러나 최 동은 그럴 수 있으리라 확신하지 못했다. 조선의 독립군으로 산다는 건 개인의 희망을 접어야 하는 것이기에. 그런 그녀의 마음을 주학은 느꼈다.

“약속 지켜.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

최 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안녕.”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최 동은 얼마 가지 못하고 걸음을 멈췄다. 도저히 그냥 가기엔 아쉽다는 마음이 그녀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몸을 돌려 주학의 출발이라도 지켜보려던 그녀는 주학도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최 동은 주학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벌린 주학의 팔 안으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부딪치고 서로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지 않으려는 듯 감은 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상대의 입속으로 흘러들어갔다. 서로를 몸에 새길 듯 강렬한 입맞춤이었다. 처음이었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이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품 안에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연인들이었다.

\*\*\*

인혁과 주명은 손을 잡고 웃으며 길을 걸어갔다. 인혁의 품 안에 잠든 아기는 평화로웠다.

그들의 주위로 깃발을 든 흰 옷의 동학군들이 함께 웃으며 멀리 비치는 환한 태양을 향해 행군하고 있었다. 길고 긴 사람들의 하얀 물결이었다.